

수필 연재

# 교장 선생님의 딸



나와 그분의 만남은 인천의 작은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신혼 초에 그 교회에 나가면 그분은 언제나 정갈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다. 양복의 정장은 겨울이 되면 격식에 잘 갖추어 입은 한복으로 변했다.

그 교회에 다닌 지 반년이 지나서야 그분이 정년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이라는 것과 부인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혼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본래 사림성이 없는 나의 성품 때문에 가벼운 목례 이외엔 말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어느새 내 마음은 그분을 나의 이상적인 아버지 상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분이 나에게 책 한 권을 주셨다.

그 책은 그분의 수필집이었다. 나는 작은 노트를 준비하여 수필 하나하나에서 느낀 소감을 적어 나갔다. 때로는 그 수필 제목에 맞춰 시도 쓰고 수필도 써서 어느덧 그 노트는 그 책의 부록같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하여 그 교회를 떠나오던 날, 나는 그 노트를 그분께 선물했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세월이 빠르게 흘렀고, 우리 교회에 왔던 말기 암환자를 속수무책으로 하늘나라에 보낸 후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그렇다고 전문적인 의학 공부를 한 일이 없는 나로서는 암환자를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병원에 서도 치료를 포기한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알려 주고 싶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피의 근원은 물에 있지 않을까? 물이 맑고 공기가 신선하고 흙을 밟을 수 있는 자연속에서 사람 역시 하나의 자연이 되면 그 중에 혹 몇 사람은 치유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어떤 것보다 이 땅에서 갈 곳 없는 말기 암환자들이 마지막으로 편히 쉬 수 있는 요양소를 만들어야겠다.

나는 그 열정 때문에 밤마다 기도했고, 시간이 조금만 나면 그런 곳을 찾아 나섰다. 암환자들을 간호해 본 나의 경험에 따라 소화기환자는 칫물이 좋고 자궁암 환자는 재배되지 않은 산속에서 자란 쑥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자리를 찾았다. 그곳은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에 있었다.

그 때가 11월이었는데 잔금은 12월 27일까지로 약속했다.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돈은 계약금(7백만원)이 전부였으나 무조건 계약을 한 것이다. 아무모한 결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이뤄주실 것이고, 그 확신이 있을 때만 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생활은 단 한 푼의 여유도 없어서 달포가 지나 잔금 치를 날이 다가오는데 잔금 6,300만 원 중에서 만 원도 준비되지 않았다. 밀리고 밀려 잔금 전날인 12월 26일이 되었다. 나는 나의 언니에게 전화를 했다.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내일이 잔금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 예비해 두셨는지 찾으면 된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언니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 "너하고 나하고 한 부모 밑에 태어나 똑같이 신앙을 받았고 한 하나님을 믿어 오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냐. 조용히 묵회하면 됐지 꼭 일을 만들어 고생을 자초하니 난 모른다. 잘 됐어! 엄마가 네게 준 돈 700만 원이 우리들이 푼푼히 드리는 용돈을 3년이나 꼬박 모은 돈인 줄이나 알아라." 나는 화를 내는 언니의 진심을 잘 알고 있다. 웬만하면 언니가 해주고 싶는데 언니의 능력으로 해결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

아도 힘들게 살아가는 동생이 또 겪어야 하는 아픔 때문에 언니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저녁 5시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받아보니 언니였다. "정옥아! 정옥아!" 내 이름만 부르더니 엉엉 소리 내어 우는 것이었다. 나는 "괜히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를 이토록 힘들게 했나보다" 하고 "언니, 괜찮아 언니에게 해달란 것이 절대 아니었어"라고 했다.

한참 말을 잊지 못하고 울기만 하던 언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다르구나. 너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던지 한동안 울다가 저녁 반찬이나 사려고 시장에 갔다가 장 장로님을 만났지 뭐냐. 장로님이 동생 잘 있느냐고 안부를 묻길래 너의 엉뚱한 것 때문에 한동안 울고 나왔다고 했더니 이번엔 장로님이 우시는 게 아니냐?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런 망극한 일을 만들었나 하고 찢찢매매에 장로님이 그 돈을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 네 통장 번호 나아서 말해봐."

언니의 울먹임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때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감동을 나는 지금도 표현할 길이 없다.

그 이튿날 오전 10시에 잔금을 치를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 후시 수표로 입금하면 내가 돈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봐 끝까지 배려하신 그분의 사랑도 같이 들어와 있었다.

그분을 다시 만난 곳은 병원이었다. 그분은 말기 암환자였다. 환자복을 입은 그분은 무척 야위어 있었다. 나는 그때 갈을 길 없는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도 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나에게 그분은 온유한 음성으로 "그돈은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유산이야. 내가 오래 전부터 너에게 주려고 마음먹었어. 그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 없어 나는 인생을 다 살고 나서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는데, 이젠 그것을 실천할 시간이 없네. 그리고 이 노트는 내가 하늘나라 갈 때 가지고 갈게."

내 손에 쥐어 주는 작은 노트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그분의 흔적을 곳곳에 남겨 두고 있었다. 오히려 나에게 내가 쓴 글 같지 않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 노트의 맨 뒷장에는 "사랑하는 내 딸에게서 받음"이라고 그분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분에게는 자식이 없어 내가 유일한 자식이 된 셈이다. 자식은 재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삶도, 기업도, 꿈도 상속받는 것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난 후에 그렇게 살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어 이루지 못한 그분의 삶을 승계하고 싶다. 나도 시간이 없어 할 수 없는 때가 이르기 전에...

현재 그곳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오랜 세월을 묵회하느라 여념이 없는 나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물과 나무와 흙과 숲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분과 나의 꿈이 있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고 인정하신 확실한 증표가 있다. 그리고 말기 암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나에게 가끔씩 들려같이 손을 걷어붙이고 봉사해 주려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

나는 이 밤 내가 해야 할 새로운 곳으임을 찾았다. 그 설레이므로 하얗게 밤을 새워 새벽을 맞는다.

### 유정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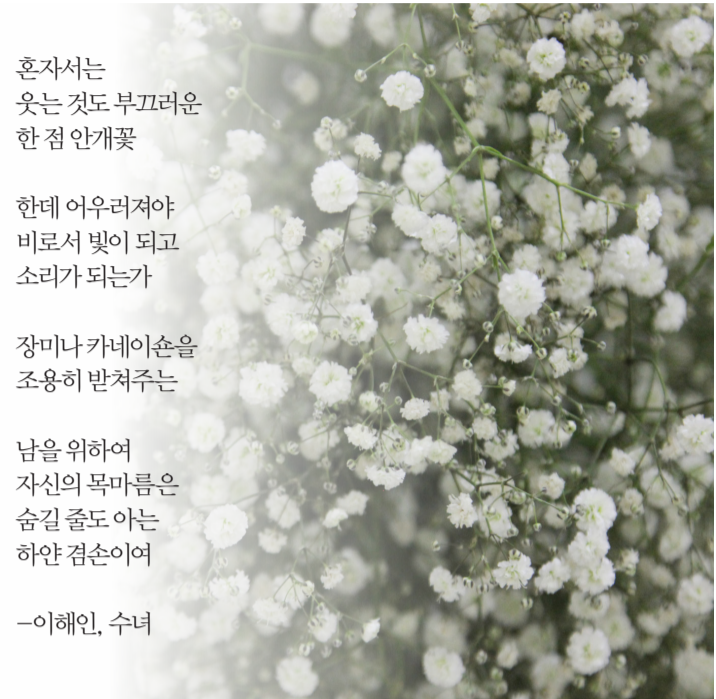
수필가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수 있어서 행복하다" 중에서

독서 칼럼

# 안개꽃

김창만

은누리 순복음 교회 목사  
포도나무 리더십 저자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개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서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여

-이해인, 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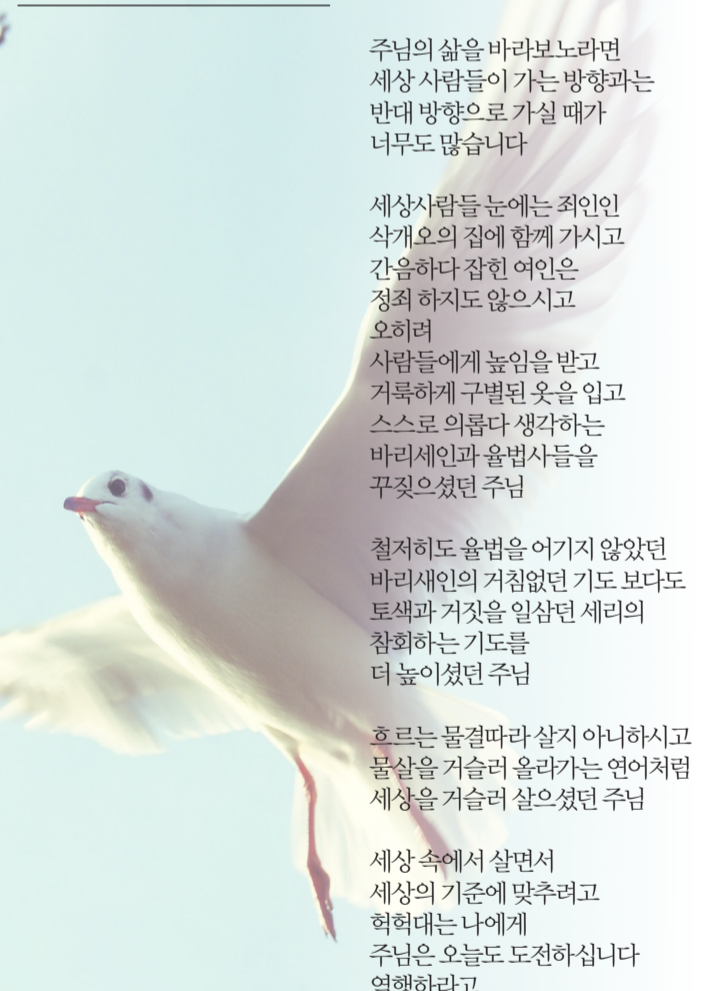
안개꽃은 석죽과의 내한성 한해살이 작은 풀입니다. 한 겨울의 백설처럼 하얀꽃이 꽃이 가파른 언덕을 따라 오르며 무리지어 핀다. 꽃이 너무 작아 무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안개꽃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작고 하찮은 꽃이 장미나 카네이션을 만나면 얘기가 달라 집니다. 남을 빛나게 해주는 귀한 존재가 됩니다. 자신은 영광을 얻지 못했을 지라도, 장미나 카네이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개꽃은 위대한 제2인자입니다. 레너드 빈스타인은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는 제2바이올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키케로는 "최고를 열망하는 사람에게 2등은 결코 불명예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엘리사, 누가, 바나바의 위대성은 제2바이올린 같은 겸손에 있었습니다. 일등지상주의, 스타승배사상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안개꽃마음을 가진 인물이 됩시다.

시 연재

# 역행하시는 주님

김영자

뉴저지 거주  
광야신인문학상, 해외문학신인상 수상



주님의 삶을 바라보노라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실 때가  
너무도 많습디다

세상사람들 눈에는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함께 가시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정죄 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옷을 입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꾸짖으셨던 주님

철저히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던  
바리새인의 거침없던 기도보다도  
토색과 거짓을 일삼던 세리의  
침회하는 기도를  
더 높이셨던 주님

흐르는 물결따라 살지 아니하시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 살으셨던 주님

세상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학학대는 나에게  
주님은 오늘도 도전하십니다  
역행하라고



**필라델피아 제일연합감리교회**  
The First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Philadelphia

T 215-542-5686, 215-280-5768  
www.pfkumc.org  
goodmorningpastor@gmail.com  
1049 Davis Grove Road, Ambler, PA 19002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담임목사 김 덕 신

**초대합니다!**

직장인을 위한 주일 아침 8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 일시: 2015년 1월 4일 (주일)부터  
○ 시간: 2015년 1월 4일 (주일)부터  
○ 시간: 2015년 1월 4일 (주일)부터

10월 초 Haiti Mission Trip에 동행할 기회를 드립니다.  
인문, 선교, 고인, 선교, 지역교회 협력, 기도회 등

**필라 한빛 성결 교회**



담임목사 이대우

주일 예배	오전 11시
주일 유치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시
금요 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 (월-토)
한빛 한글학교	오후 1시 (토)
말씀 암송학교	오전 9시-오후 5시(토)
방송설교-필라기독교방송	오전 9시 (목)

267-577-0392  
leedaewoo19126@gmail.com  
1407 Huntington Pike.,  
Huntingdon Valley, PA 19006

